

제 목 : 암몬과의 전쟁

1. 하늘 왕과 조문 사절

하늘의 선왕 나하스는 사울 왕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있다(삼상 11:1, 11).

그래서 나하스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. 다윗이 이를 기억하고 나하스의 아들 하늘에게 조문 사절을 보냈다(삼하 10:1-2).

2. 조문 사절을 홀대한 하늘과 암몬의 관리들

암몬 자손의 관리들은 다윗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하고 왕에게 잘못된 보고를 했다(삼하 10:3).

신하의 보고를 받은 하늘은 조문 사절의 수염과 옷의 절반을 자르고 돌려보냈다(삼하 10:4).

고대 근동에서 수염과 하체 의복을 자르는 행위는 노예 취급을 하는 것과 같은 수치를 주는 행위였다. 다윗은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조문 사절들을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러 있게 했다(삼하 10:5).

3. 암몬 자손과 그의 용병들과 다윗의 군사와의 전쟁

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산 것을 알고 이웃 소도시 국가들로부터 용병을 구했다. 벤르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의 군대 1천 명, 돕의 군대 1만 2천 명을 고용했다(삼하 10:6).

다윗이 소식을 듣고 요압을 대장으로 하여 군대를 파송했다. 암몬 자손은 수도 랍바성 어귀에 포진했고, 하논이 고용한 아람의 용병들은 랍바성 남방 6km에 있는 메드바 들에 진을 쳤다(삼하 10:7-8).

요압은 소수 정예병을 엄선하여 아람 용병군과 싸우기 위해 진을 치고, 나머지 병력은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군대를 공격하게 했다(삼하 10:9-12).

요압이 먼저 용병 아람 군대를 치니 그들이 패하여 도망갔고, 이를 보고 암몬 군대도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다(삼하 10:13-14).

4. 암몬, 아람 연합군의 패배

아람 사람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에도 다시 사람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했다(삼하 10:15-16).

이스라엘은 모압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2차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뒀다. 하닷에셀은 종주권을 가지고 아람의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, 그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(삼하 10:17-19).